

# 33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

## Chapter

수 7:1~26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 145장 (주께 드리는 나의 시)

### 오늘 배울



### 말씀

1.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압니다.
2.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의 죄가 제거되어야 함을 압니다.
3. 죄는 반드시 드러남을 압니다.

### 마음 열기



“당황하지 마세요! CCTV가 모든 것을 밝혀 줄 것입니다!”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52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을 때 영국 경찰이 한 말입니다. 런던은 CCTV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곳으로 유명한데요,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도로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지하철 안에서도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인들은 빅브라더(큰형 : 보이지 않는 손)의 감시체계 아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는 66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국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300회 정도 CCTV에 찍힌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숨을 곳도, 숨을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고도 정밀한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 말씀을 이해하기

요단강을 건넌 후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아무런 희생 없이 쉽게 함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 전 투에서 그보다 훨씬 작고 약한 아이 성을 치다가 패배하여 36명이 전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며 기도하다가 이 일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 이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 드러냈습니다. 결국 지파, 족속, 가족까지 제비를 뽑은 후 가족 중의 남자를 모아 제비를 뽑은 결과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 전투 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즉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아간이 그 바쳐진 물건 중 시날 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장막 땅 속에 감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최후에 자신이 뽑힐 때까지 끝내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죄를 없이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한 사람의 숨은 죄로 인해 제한받고 영혼이 잃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이는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수 7:13)

“Get up, sanctify the people, and say, ‘Sanctify yourselves for tomorrow, because thus says the LORD God of Israel: “There is an accursed thing in your midst, O Israel; you cannot stand before your enemies until you take away the accursed thing from among you.” (Js 7:13)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수 7:16~19)

(욘 20: 12~16)

(잠 28:13~14)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나오는 '바친' 물건에서 '바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렘'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분시켜 오로지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것은 (1)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봉헌'의 의미와 (2)철저히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진멸'의 의미 등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1. 레위기 27장 28절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되는 대로 정리해 보세요.
2. 여호수아 6장 18절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3. 내게 있는 물건 중에서 철저히 파멸시키고 저주해야 할 물건, 즉 바친 물건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그 물건을 계속 소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4.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뿐 아니라 교회에 피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교회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사람의 가치



여기 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구겼습니다.  
많이 구겨졌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발로 밟았습니다.  
여러번 밟혔습니다. 많이 더러워졌지만  
여전히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YEAH~  
5만 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 원숭이의 꼭 찢 주먹

북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만한 크기의 구멍을 가진 박스에 과일을 가득 채워서 저녁때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어 놓습니다. 밤중에 원숭이는 과일의 냄새를 맡고 그 박스를 찾아내 손을 넣어 과일을 한 움큼 집니다. 그러나 그 박스는 구멍이 너무 작아 과일을 찢 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그 과일을 포기하면 손을 꺼내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과일을 포기할 수도 없기에 밤새도록 주먹 찢 손을 빼려고 잡아 당기지만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고 그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발각되어 쉽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펴 6:9~10)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